

# 재생디자인을 활용한 한옥의 재구축 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sign Method of Restructuring Hanok by the Restoration

Author 박상현 Park, Sang-Hyun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 석사과정  
박찬일 Park, Chan-Il / 이사,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 부교수

Abstract In recent, as rediscovery of the modern value is developed through the support by the government and the reinterpretation of the traditional culture, a Korean-style house(Hanok) also becomes an object of interest. Among these various viewpoints to see the Korean-style house, the necessity of a new spatial design approach to contain the types and functions of the architectural space of the Hanok appropriate to the modern society is raised which is not a passive approach to preserve the existing cultural assets. Out of the methods of the new spatial design of the Hanok which reflect the paradigm of the times, this study has the purpose to make an approach from the viewpoint of 'Restoration design'.

As the 21st century started, the recycle design whose active discussion and performance is made largely by Europe and Japan can be called a design method in the hardware part which enables continuous adaptive use of a building by applying a new use purpose and method to a building which doesn't use the recycle design or has low efficiency. In that meaning, it can be considered to be a very important architectural activity historically, architecturally and spatially. Based on the method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recycle design, this study largely divides the types of recycle into coherent recycle and imagery recycle and dedto s detailed methods of space, consinto ion and material and wardrobe used for each case to analyze the methods of concrete recycle design through the methodological analysis of recycle cases of the existing modern buildings. For the objects of recycle cases of the Hanok made recently based on the design methods acquired here, it was examined how the architectur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Hanok can be reconsinto ed through what kinrecycmethods. The approach of the recycle design is considered to be a cornerstone to show a new architectural and spatial value in the viewpoint of the Hanok existence in modern times.

Keywords 근대건축, 디자인수법, 한옥, 재생, 재구축  
Modern Architecture, Design Method, Hanok, Restoration, Restructuring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한옥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더불어 한옥의 재구축 작업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01년 이후부터 한옥에 대한 정부지원의 증가와 더불어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재조명을 통한 현대적 가치의 재발견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되어지면서 한옥 또한 중요한 관심의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점의 변화를 계기로 한옥에 대한 다방면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존하여야만 하는 문화재적 건축유산이라는 기존의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

고 소극적인 접근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여 진다.

본 논문에서는 문화재적 건축유산으로서의 한옥에 대한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한옥의 활용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 입각하여 최근 세계적으로 활발히 논의되어 실천되고 있는 '재생디자인'을 활용한 건축물, 공간 사례를 토대로 그 가치와 의미를 파악함과 동시에 어떠한 재생디자인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재생디자인'은 2000년을 전후하여 유럽과 일본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와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방법론으로서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건물을 새로운 이용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도록 재구축하여 건축물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건축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

는 디자인 방법이다. 이러한 ‘재생디자인’에 입각하여 한옥이라는 우리의 전통적 건축공간이 새로운 시대에도 그 본래의 건축적 목적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구축 디자인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의 방법과 범위를 설정하였다.

(1) 한옥의 재구축 디자인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기본적인 한옥의 정의와 최근 한옥의 재구축에 대한 다양한 경향을 알아보고 한옥의 재구축디자인의 가능성과 그 의미를 모색한다.

(2) 이러한 한옥의 재구축 디자인 방법을 도출해내기 위해 먼저 역사적 측면에서의 일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서양의 근대건축물을 재생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재생되어진 건축물과 공간들을 사례로 구체적인 재생방법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33개의 근대건축의 재생사례 중에서 각각의 세부적인 디자인방법의 분석이 가능한 해외의 근대건축물 재생디자인 적용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도출되어진 재생디자인 방법을 유형별로 정리, 고찰하였다.

(3) 상기 (2)에서 정리, 고찰한 재생디자인 방법에 근거하여 한옥 가꾸기 계획이 활발히 시작된 2001년 이후 한옥의 재구축을 주제로 발행된 전문서적과 건축전문잡지, 한옥의 재구축 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건축가의 저서, 현장답사 등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주제에 부합하는 다양하게 재구축 되어진 한옥의 사례들을 선정하여 상기 (2)에서 얻은 재생디자인의 방법적 관점에 입각하여 각각의 사례들에 적용된 재생디자인의 방법들을 분석, 고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재생디자인의 방법을 활용한 한옥의 재구축 방법과 그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한옥의 재구축과 재생디자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 2.1. 한옥의 개념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한옥’은 반드시 살림집으로 영역을 한정하지 않고 그 쓰임새에 따라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른 공간의 사용, 개발여부에 따라 넓게 해석되어 질 수 있다. 원래 한옥이라는 용어는 1975년 이후에 많이 사용되어지기 시작하였는데 「사람이 살림하고 사는 살림집」을 지칭하였다.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는 주택(住宅)이나 주거(住居)의 개념과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로써 우리나라의 전통적 민가를 의

미하는 고유한 주택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서인지 한옥하면 고건축이라는 과거의 건축물로 취급 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과거의 살림집 정도로 인식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기존에 출간된 많은 한옥관련 서적이 주택개념으로 한옥을 소개하고 있고 매스컴 또한 예외라 할 수 없다. 오늘날의 한옥은 ‘살림집’이라는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공간이 아닌 「사람이 삶을 사는 집, 생활을 하기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춘 건물」이란 내용이 함축된 단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안동 하회마을의 ‘심원정사’<sup>1)</sup>나 강화의 ‘학사재’<sup>2)</sup>등은 전통적인 법식과 기법에 따라 조영되기는 하지만 건축자재도, 조영하는 도구도, 사용하는 척도도, 공사하고 있는 종사자도 모두 현대에 사는 현대인들이고 시설도 최신의 것으로 망라되어 현대인들이 살 수 있는 집으로 건축된 21세기 오늘의 살림집으로 현대적 의미의 한옥인 것이다.<sup>3)</sup>

### 2.2. 한옥의 재구축과 관련한 사회적 현황

과거 한옥의 재구축에 대한 인식부족과 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저변에 공통의 인식을 공유하여 오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전통문화의 창조적인 계승 및 발전,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짐으로 이를 계승하려는 다양한 모색이 진행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흐름들은 크게 건축적인 측면, 관련법규 및 제도적 측면, 그리고 문화적 측면의 3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 (1) 건축적 측면

1990년대 중반 이후 한동안 중단되었던 한옥보전사업이 최근 서울과 전주를 비롯한 경주와 광주, 강릉 등의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다시 활발히 추진·시행되고 있다. 기존의 한옥 개·보수, 기존마을의 한옥마을화 등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한옥의 건축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사무소<sup>4)</sup>를 들 수 있다. 이 동사무소는 최초의 한옥청사로서 한옥을 현대의 기능과 프로그램에 맞도록 하여 한옥의 다양한 건축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1>

- 1) 심원정사는 경북 안동 하회마을에 있는 한옥으로 ‘ㄷ’자 형태의 전형적인 한옥으로 실제 건축은 90년대에 이루어진 현대 한옥건축으로서 당대의 유명한 장인들에 의해 건축되어진 작품으로 한옥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주요 현장학습지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 2) 산기슭에 위치한 자연주택 ‘학사재(學思齋)’는 전통기법과 현대주택을 합한 한옥살림집으로 목수 신영훈이 설계하고 도편수 조희환이 대목, 이론과 실무를 갖춘 건축박사인 지자가 현장소장을 맡아 지은 한옥살림집이다.
- 3) <http://www.hanok.org/housetory2.htm>
- 4) 최초의 한옥청사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인 한소제가 살던 집이다. ‘ㄷ’형 한옥 구조로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동사무소라는 업무 공간에 맞춰 리모델링되어졌다.



<그림 1> 혜화동사무소, 한겨레 건축사사무소, 2006

(2) 관련법규 및 제도적 측면

과거의 ‘한옥보전지원정책’은 한옥의 특성은 물론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전통한옥’을 기준으로 한 형태적 보전에 그 중심을 두고 추진되어 왔다. 그 결과 보전정책이 추진되어 온 20여 년 동안 전통건축의 맥을 이을 수 있는 한옥의 체계적인 신개축, 정비가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형태보존 위주의 건축행위 제한으로 건축물의 증·개축이 주민의 형편에 따라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한옥의 형태적 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건축물의 노후화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최근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옥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그것을 통한 문화적 정체성의 형성이라는 사회 및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지면서 특히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접근방식에 의한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은 ‘문화재보호법’ 등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지정 문화재로 지정하거나 중요민속자료 등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옥이라는 우리의 고유건축에 대한 제도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조례에서 목구조로서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3) 문화적 측면

현재 한옥은 현대생활에 부합하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문화·예술 공간, 교육 공간, 숙박 공간, 종교건축 등 다양한 형태의 공간적, 기능적 변화를 이루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우리에게 현대의 주거 공간으로 친숙한 아파트의 예를 생각해 보면 과거 단순히 건설회사의 이름을 명칭으로 사용하던 것과 달리 독자적인 브랜드명으로 그 주거가 갖는 가치를 표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한옥도 하나의 브랜드로 그 문화적 가치가 정착되는 경향을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1776년에 지어진 구례군 토지면의 운조루(雲鳥樓)<sup>5)</sup>라고 하는 한옥이다. 사랑채의 당호(堂號)인 ‘운조루’가 이 한옥이 갖는 문화적 브랜드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그림 2>



<그림 2> 구례군 토지면 운조루, 류이주, 1776

2.3. 건축분야에서 재생의 개념

최근 지구환경의 다양한 문제점의 제기와 함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재생’이란 의미가 건축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그 영역을 확고히 하고 있는 듯하다. 윤승준은 “근본적으로 재창조의 건축 작업이란 재생적 작업을 포함하여 정의되어야 하며 공간적으로 고정된 건축을 시간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것을 말한다.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순환성과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물에는 생명과 수명이 존재하며 건축물 또한 그러하다.”<sup>6)</sup>고 하며 건축의 재생을 하나의 생명체가 재탄생하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건축도 시대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능과 프로그램에 적응 가능하도록 재탄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축에 있어서 재생이라는 의미는 사회전반에 걸쳐 대두되고 있는 재활용(recycling)이라는 개념과 결부되어 논의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그러한 가치적 기준에 따라 기능이 떨어지는 낙후된 건축물의 전용, 활용 등을 통하여 건축에 시대의 요구에 대응 가능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의되어지고 있다. 또한 한편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한 보전의 측면을 넘어 새로운 방향으로 활용하거나 기존의 건물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새로운 활용가능성을 부여함을 의미한다. 기존 공간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포괄하며 재건축, 재개발, 재활용 등의 ‘재(re-)’를 포함한 대부분의 복합어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2.4. 한옥의 재구축에 있어서 재생디자인 관점에서의 접근 가능성과 그 의의

상기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한옥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으며 그 가치를 되살려 활용하기 위해 한옥의 재구축에 관련한 사회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것을 보존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소극적인 수선의 차원을 넘어서서 현대의 한옥, 더 진화할 수 있는 건축으로서의 ‘한옥’으로의 가치를 이러한 재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상승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최근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면서도 재구축 되어지는 건축물이나 건축공간을 보면 그 공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

5) 중요민속자료 제8호, 조선영조 52년 당시 삼수부사를 지낸 류이주가 세운 것으로 99간의 대규모 주택으로서 조선시대 선비의 품격을 상징하는 품자형(品字形)의 배치형식을 보이고 있는 양반가이다. ‘ㄱ’자형 행랑채와 ‘T’자형의 사랑채, ‘ㄷ’자형의 안채, 안마당의 곡간채가 팔작지붕, 박공지붕, 모임지붕으로 연결되어 있는 일체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  
6) 대한건축학회, 재생, 건축 1995.07, p.10, 윤승준, 근대건축물의 재사용에 따른 보존과 재생의 방법 및 기준, p.3에서 재인용.

는 다양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건축에 있어서의 활용은 '새로운 이용목적이나 이용방법을 도출하여 건축이 갖는 본래의 가치를 유지하는 행위이며 재생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드웨어적인 수단'이라고 오오카와 나옴이는 주장하고 있다.<sup>7)</sup> 한옥의 재생도 역시 활용이라는 프로그램적인 접근과 함께 그것을 뒷받침하는 하드웨어의 디자인적 접근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의 문화적·정신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거부감이 없으며 현대사회에 기능적으로 대응하면서 질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한옥의 재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 3. 재생디자인을 활용한 재건축 사례분석

최근 국내외를 제외하고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과 공간이 재건축되어지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존의 사례들을 통하여 인위적, 자연적 원인으로 건축물의 성능이나 기능이 저하되는 물리적 노후화와 현대적인 새로운 건축문화와 서구생활 양식의 파급에 의한 새로운 기능의 보완 및 추구, 경제와 문화의 변화 등의 시대적 요구사항이 근대건축의 활용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양한 근대건축물의 재건축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사용되어진 수법들을 파악하므로 한옥에서의 적용가능성과 구체적인 효과를 가늠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다양한 사례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정리한 결과 공간 구성적, 구조적, 재료적, 의장적인 세부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세부 방법의 특성들을 정리하여 크게 '맥락적 측면'에서의 재생과 '이미지적 측면'에서의 재생으로 그 유형을 분류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논문의 구성상 상위의 유형분석과 하위의 세부방법을 역으로 해석하여 먼저 상위개념으로서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안에 세부적인 방법들이 설명되도록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맥락적 측면'과 '이미지적 측면'으로 분류되어진 각각의 재생수법들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기본적으로 역사성에 바탕을 둔 맥락을 잇기 위해서 시행되어지는 동일함을 가짐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 의미상 중복되어지는 부분이 존재하며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 3.1. 맥락적 재생수법에 의한 근대건축물의 재생

먼저 맥락적 재생의 개념과 그 구체적인 적용 방법들을 대표적인 사례들을 분석하며 살펴보고자 한다. 맥락적 재생의 개념은 근대 이후에 새롭게 인식되어지기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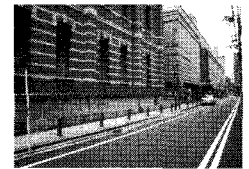
작한 역사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성이라는 개념의 배경에는 근대건축이 갖는 모순이 존재한다. 즉 과거와 현재를 단절시킨 채 대립관계로 보았던 모더니즘 건축가들의 생각이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장소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성, 주변과의 조화, 역사성 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의 맥락적 측면과 근대건축물을 증·개축할 때 과거와 현대의 건축물이 조화를 이룸은 물론이고 주변의 컨텍스트까지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으로부터 형성되어진 것이다. 일본 동경의 오모테 산도힐즈 재개발에서 과거 도준칸 아파트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마지막 한 동의 구체를 보전하고 내부에 새로운 기능을 삽입하여 기존의 지역적 맥락성을 유지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그림 3>



<그림 3> 도준칸, 안도 타다오,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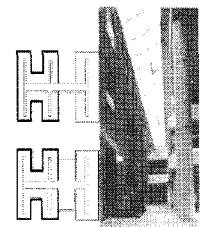
#### (1) 공간 구성적 수법

근대건축물 재생의 주요 방법으로 공간 구성적인 수법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의 변형이나 내부공간의 변화, 동선의 변화, 스케일의 요소 등으로 인한 수직·수평적 확장, 진입구의 재정리, 기능적 확충을 위한 새로운 공간의 생성 등이다. 이러한 예는 교토문화박물관에서 보여 지듯이 역사적 건축물과 신축 건물의 맥락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건물의 스케일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채용하였다. 이러한 수법은 내부공간의 수직적인 공간 확장, 동선의 변화로 구체화된다.<그림 4>



<그림 4> 교토문화박물관, 京都府土木建築部 營繕科, 1906(구준공년) - 스케일의 변화로 인해 내부공간의 변화, 수평적 확장, 새로운 공간의 생성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애버뉴 2000 번지 계획(2000 Pennsylvania Avenue Project)을 보면 아트리움을 이용한 예를 볼 수 있다. 기존의 저층부분과 후면의 높은 건물을 결합시키기 위해 아트리움이라는 건축형식을 이용해 신, 구의 건축이 상호간의 맥락성을 갖도록 공간의 연결을 유도한 것이다. 이러한 재생수법의 적용으로 자연스럽게 아트리움이라는 공간이 새롭게 생성 되게 되었다.<그림 5>



<그림 5> 2000 Pennsylvania Avenue Project - 기존상태 유지, 아트리움 공간변화

#### (2) 구조적 수법

구조적인 특징을 통해서 그 당시 시대상황과 시기 등을 알 수 있으며 무조건적인 보존이나 보수 등을 하는 것이 아닌 역사적 건축물이 갖는 맥락성을 유지하기 위

7) 大河直射 의, 歴史的遺産の保存・活用とまちづくり, 學芸出版社, 2006, pp.36-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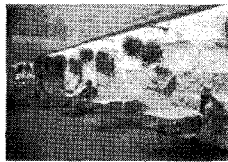
해 기존의 구조적 특성을 살리면서 또한 보강하면서 구조적으로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접근은 건축물의 수명연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후에 건축물의 해체 시의 용이함까지 고려해야하는 측면이다. 대표적인 예로 구모지 세관을 살펴보면 벽돌 동체 보강으로 기존의 벽체에 공벽을 덧붙임으로써 벽돌의 두께를 넓히는 벽량부분의 보수가 이루어졌으며 기존건물의 소나무 기둥 부식과 지반이 유출된 부분을 시멘트 밴드나이트로 보강 하였다. 2층 부분은 목골조로 만들고 내부의 구조는 가벼운 목구조로 만들어 벽체와의 공극을 두어 목구조 자체로 자립시켰으며 이는 벽돌에 가해지는 불필요한 하중을 피하도록 하면서 새것과 옛것의 대비를 통하여 긴장감을 일으키도록 구성되었다. 이처럼 내·외부 구조의 표현을 위해 기존의 구조를 독립시키고 새로운 구조를 보강하여 현대의 기능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수법이 특징적이다. <그림 6>



<그림 6> 구모지 세관, 大野秀敏, 1994

(3) 재료적 수법

건축물의 외관이나 내부에서 사용한 재료의 사용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통해 건축물의 중요도와 시기 또한 구별할 수 있으며 대비적인 면과 서로 조화를 이루거나 통일성을 부각시키는 등 기존의 재료와 새로운 재료의 관계성으로 맥락성을 표현하는 수법이다. 이러한 신·구의 요소들을 대비시키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 재료의 특성과 시대성까지 파악하여 사용함으로써 재료에 의한 시간성을 공간이나 건축물에서 느끼게 해주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예로 시몬스 칼리지 센터(Simmons College Center)를 들 수 있다. 실내 보수공사에서 우연히 발견된 예전의 벽을 실내와 실외의 재료적 대비를 통하여 역사와 시간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제안되었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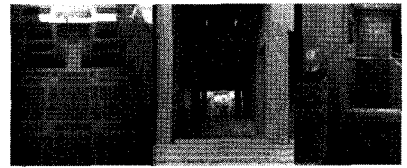


<그림 7> Simmons College Center

(4) 의장적 수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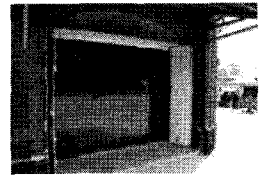
수용될 새로운 기능들과 심미적인 접근방식에 관한 것에 있어 때로는 역사적인 건물일 경우 원래의 실내디자인을 재현하는 방식이 채택되기도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건물을 철저히 분석하고 형태와 마감, 또는 색상까지도 재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상당한 시간과 경비가 필요한 일이지만 잘 시행된다면 가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수법이다. 일본의 건축회관은 구 건물을 해체하면서 건물 중에 보존가치가 있는 부분은 증축과 개축을 아울러 타부지에 신 건물을 신축하는 부분 보존의 사례이다. 구건물의 특징은 아름답고 조화

로운 색상의 외장타일을 신관의 엔트런스 부분에 이설하여 사용하였다. 외장타일의 보존은 모양과 텍스처의 보존에 중심을 두고 부분 보존을 한 파사드의 사용 재료로는 매다리옹과 스파노레루를 사용하였다. 그 외에 출입구의 장식기둥, 외벽의 타일, 내부공간의 풍제실 아치, 계단 손잡이, 벽의 기둥을 신관으로 이설하였다.<그림 8>



<그림 8> 건축회관, 秋元和雄 설계사무소, 1982

요코하마 적벽돌 창고의 재생의 경우에는 출입구의 3장으로 접힌 문에 사용된 리벳접합을 복원하기 위해서 현재는 건축물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는 리벳접합 기술을 재현하여 그의장특성을 유지시키고자 하였다.<그림 9>



<그림 9> 요코하마 적벽돌 창고, 신주천추부시 건축설계 사무소

이처럼 맥락적 재생에 의한 세부방법에서는 기존의 것을 매우 중요시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기존의 공간, 형태, 요소 등을 유지하면서 변형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연계성을 찾거나 또한 새로운 것이 이입되더라도 이질적이지 않으면서도 효율성을 유지하여 주변과의 맥락이나 기존 것과의 맥락을 유지하는 변형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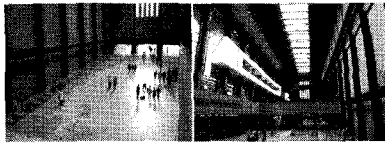
3.2. 이미지적 재생수법에 의한 근대건축물 재생

이미지적 측면에서의 재생은 역사적인 보존가치가 높은 건축물이 갖는 본래의 형태와 기능을 유지하면서 실내공간을 개수하는 방법이다. 또한 과거의 기능을 현재도 그대로 이용하면서 과거의 흔적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이미지와 형태만 남기고 내부 공간의 기능을 완전히 바꾸어 사용하는 방법도 사용된다. 부분적으로는 맥락적 재생수법과 유사한 부분도 있으나 맥락적 재생이 주변과의 조화, 역사성의 맥락에 보다 더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장미 같다’고 한다고 하여 꼭 장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장미의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가시가 돌아나 있는 철조망을 보고 장미처럼 가시가 돌아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장미의 가시 같다고 역시 말할 수 있듯이 이미지적인 재생의 방법 또한 이러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기존의 것이 모두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를 지킬 수 있다면 이미지가 재생되어졌다고 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 구체적인 수법은 다음과 같다.

(1) 공간 구성적 수법

맥락적 재생에서의 공간 구성적 수법인 역사성, 주변

환경 등에 의한 동선, 스케일, 공간의 변화 등은 주로 증·개축이나 프로그램의 변화가 명확히 일어날 때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미지적 재생에서의 공간 구성적 수법은 프로그램의 변화가 없을 시에도 원래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수법이며 또한 근대건축물로서의 이미지와 형태만 남기고 내부는 완전히 바꾸어 기능을 회복시키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테이트 모던 갤러리(Tate Modern Gallery)를 들 수 있다. 화력발전소였던 이미지를 벗고 현대미술을 담는 뮤지엄으로서의 기능 변화를 위해 외부의 형태에서도 단순하면서 강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내부에는 거대한 터빈 홀이 있는데 이 터빈 홀은 기계들을 모두 치우고 거대한 공공의 갤러리로 변했다. 강가의 테라스와 다리로부터의 추가적인 입구가 있는 서쪽으로부터 시작되는 긴 램프로 출입이 유도되어진다. 보일러 하우스 역시 전시실로 바뀌었다. 갤러리는 중앙에 에스컬레이터의 양옆 모두에 노출되었다. 내부는 외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그림 10>



<그림 10> Tate Modern Gallery, 자크 헤르조크 & 피에르 드 뢰롱, 2000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기능을 위한 공간의 확충을 통하여 수직·수평적 확장이 일어나기도 한다. 일본의 국립어린이도서관은 층돌의 에너지가 미래를 담당할 아이들의 장소로서 어울린다는 이미지적 발상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생성시킨다는 의도가 재생계획의 중심에 있었다. 기존의 도서관이라는 기능적 프로그램은 유지되었으나 이미지적인 기능의 변화를 통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의도 하에 진행된 사례이다. 기존 부분에 있어서도 구조적인 부분은 준공 당시의 상태를 충실하게 재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그 공간의 사용방법과 같은 프로그램은 완전히 새로이 계획되었다. 그 중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내벽은 예전의 것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 내벽에 의해 싸여진 형태, 즉 인테리어는 기존의 것로부터 자립하는 방법이 적용되었다. 과거로부터의 기억을 계승하여 그 위에 현대적 시점의 기억을 게재시켰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이미지가 연결되어진다. 건축가의 의도가 보인다.<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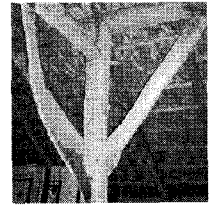
<그림 11> 국립어린이 도서관, 安藤忠雄 건축 연구소 + 日建 설계, 2002

### (2) 구조적 수법

이미지적 재생에서의 구조적 수법은 재료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다. 그 시대의 상징적 이미지를 재료와 구조로부터 재현하여 시대성을 연상할 수 있도록 이미지화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외부와 내부의 구조적인 틀에서 그러한 것들을 연상할 수 있도록 구조의 이미지를 보존, 회복시키고 재현해 냄으로써 연상 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독일 굴프하우스(Gulflhaus)의 사례는 맥락적 재생의 수법과도 상통하는 부분을 살펴 볼 수 있다. 네덜란드 양식의 4개의 원형기둥과 보로 구성된 라멘구조는 독일에서도 흔하지 않은 양식으로 그 보존가치가 높아 구조적 양식의 특성을 이어가도록 계획 되었다.<그림 12>



<그림 12> Gulflhaus, 건축년-18,9세기(추정), 1994년부터 개수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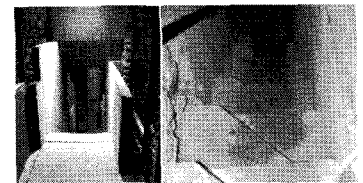
베키오성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의 공간을 현재화하기 위하여 건축원리로 부재들의 독립을 피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일본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었던 건축의 구조적 방법이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부재들 사이에도 물리적인 간격을 두어 기존과 신규, 부재와 부재간의 독립성을 피하고 있다.<그림 13>



<그림 13> Castel Vecchio, 까를로스 까르파, 1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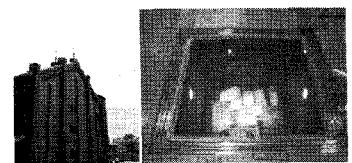
### (3) 재료적 수법

이미지적 재생에서의 재료적 수법은 맥락적 재생에서의 재료적 수법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건축물의 외관이나 내부에서 사용한 재료의 특징을 통해 그 건축물과 내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차이점을 살펴보면 이미지적 재생에서의 재료적 수법은 좀 더 심미적이고 활용도가 더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맥락적 재생에서의 재료적 수법에서 프로그램적인 본질의 성격이 강했다면 이미지적 재생에서의 재료적 수법은 재료로 인한 기존의 시대 상황, 흐름을 알 수 있다. 베키오성(Castel Vecchio)에서 보이는 미술관과 관리동을 구분하는 바닥의 페이빙 디자인은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의 대비를 뛰어난 디테일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예이다.<그림 14>



<그림 14> Castel Vecchio

요코하마 적벽돌 창고 역시 기존의 창고시설에서 외관을 완벽히 복원 보존하고 내부를 전면 리모델링하여 새롭게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 지역의 명소가 되었고, 무척 낙후된 모습으로 변모해 있었던 이 건물을 건설당시의 모습을



<그림 15> 요코하마 적벽돌 창고

로 되살리기 위해 외관을 보존하고 적벽돌 치수와 색상을 검토하여 노화되고 손상된 벽돌을 수복하였다. 내부 역시도 건설 당시의 모습을 되살리기 위해 노화와 손상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벽면의 낙서를 지우는 청소는 수압으로 청소하는 방법을 택하였으며 청소 시에는 수압을 조절하는 것으로 적벽돌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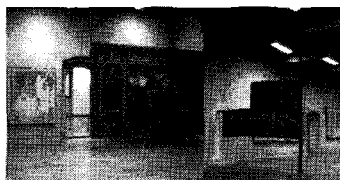
#### (4) 의장적 수법

심미적, 양식의 복원 등 장식적이고 상징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회복되어지거나 재현되어진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연상 작용을 하게 된다. 기존의 이미지를 회복하는데 있어서 실내디자인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단지 흉내만 내는 모방이 아닌 재현을 하는 것이다. 어떠한 모습을 보고 특징적이고 상징적인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거나 색채만을 보고도 시각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거나 장식적이고 디스플레이적인 모든 요소에서도 디테일하게 각각의 관계가 상호간에 조화롭게 보이도록 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포인트이다. 구체적으로는 파사드의 상징성, 외피, 디테일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존의 형태를 택하여 그 느낌을 현대적인 수법으로 되살리기 위해 색채, 형태, 스케일, 모티브, 재료, 윤곽 등이 보다 현대적인 양식으로 변형되어지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본래의 느낌들을 남겨 기존의 것과의 관계성을 보다 쉽게 이해시키는 수법이다. 독일의 보훔홀(Jahrhunderthalle Bochum)은 형태와 장식적인 측면에서 마치 성당건축을 떠오르게 한다. 그것은 성당건축과 유사한 이미지를 담으려는 의도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다.<그림 16>



<그림 16>  
Jahrhunderthalle Bochum,  
karl heinz petzinka 설계,  
2003

베키오성의 내부공간은 공간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확인 할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은 과거의 공간을 현재화하기 위한 건축원리로 부재들의 독립을 꾀했다는 것이다. 중간 중간에 설치되어 있던 독립 벽체나 떠있는 듯한 회화 받침대는 각 요소의 독립성을 확립하며 더불어 그것이 수면에 떠있는 베네치아의 건물을 상징한다는 해석도 있다. 창틀의 독특한 비례감이나 계단, 문, 그 외의 모든 접합부의 뛰어난 디테일은 각각의 요소들의 독립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요소간의 결함을 균형 있고 자연스럽게 이루어나고 있다.<그림 17>



<그림 17> Castel Vecchio - 내부

### 3.3. 재생디자인 방법의 한옥에의 적용에 있어서 한계와 그 가능성

전장에서 서술한 한옥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기준에 의한 제한점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근대건축물의 재생방법에 있어서도 유사한 제한점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한옥의 법적인 틀이 개선되고 또한 서양식 건축의 틀에 따라 만들어져 왔던 제도가 갖는 한계를 감안한다면 이 역시 앞으로 다양한 측면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개선되어져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근대건축물의 재생에 있어서는 도시조직 속에서 역사적 도시경관의 효율적인 보전과 재생을 위한 외적 기준과 거주자의 생활양식을 존중하는 내적 기준이 존중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외적인 기준과 내적인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재생의 방법론을 통하여 지금까지 일률적인 패턴으로 획일적인 이미지만을 만들어내고 있는 한계점을 보였던 한옥의 재구축 작업도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한옥이라는 고유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부분은 좀 더 신중히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며 한옥이 갖는 특성을 고려한 공간적, 의장적 측면을 포괄한 재생디자인의 방법의 개발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따른 법적, 제도적 기준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 4. 한옥의 재구축디자인 방법

### 4.1. 한옥의 재구축 디자인 사례선정 기준

3장에서 도출한 근대건축물의 재구축 유형과 그에 따른 방법에 근거하여 먼저 한옥의 레노베이션이라는 키워드로 사례를 조사하여 37개의 사례를 도출하였다. 그 중에서 법·제도적인 측면 중 특히 기본 한옥구조의 틀에서 벗어나는 사례들은 제외했으며 공간조직의 변화에 있어서 다소 확연히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사례들도 제외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22개의 사례를 도출하였다. 그 중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아 국내 잡지에 소개되어진 2000년 이후에 재생된 한옥을 대상으로 총 10개를 최종 사례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한옥의 사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능의 변화는 본래의 주거였던 기능이 각각 다양한 다른 기능으로 변화됨에 따라 공간이 그 필요와 쓰임에 맞게 변화되어진 것이 대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공간의 기능적인 변화도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었다.

### 4.2. 한옥의 재구축 디자인 유형과 방법 분석

3장에서 해의 근대건축물의 재생 사례의 고찰을 통하여 얻은 재생방법과 그 특성에 근거하여 상기의 선정

된 사례를 중심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한옥의 재구축 디자인 유형과 방법을 분석하여 그 특성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






### 4.3. 한옥의 재구축 디자인 방법

상기의 분석을 통해서 한옥의 재구축에 있어서 적용되어진 재생방법을 정리하였다.<표 1>

<표 1> 한옥의 재구축 유형과 방법에 관한 전체적인 분석

명칭	이미지 / 재구축 전·후의 공간	재구축 유형과 수법							
		맥락적 재생				이미지적 재생			
		공간 구성적 수법	구조적 수법	재료적 수법	의장적 수법	공간 구성적 수법	구조적 수법	재료적 수법	의장적 수법
취죽당 (주거→주거+공방)	 <그림 18> 황두진 건축사사무소, 2005 -주변경관이 폐쇄적, 답답함 -내부의 개방성 필요 -대문 앞 사랑채의 벽이 가로막고 있어 있음 -제도적인 사항(차마선) 회복 -새로운 기능을 수용 할 수 있는 공간 생성	●	●	●	○	●	●	●	●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31-60		<p>① 공간 구성적 수법 : 기존 한옥의 맥락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랑채라는 공간은 없앨 수 없는 부분이므로 그 일부를 누마루로 만들어 완전히 개방시켜 공간을 확장, 새로운 기능과 공간적인 변화를 수평적 확장으로 이루어냄. 외부에 부엌과 화장실의 생성, 동선의 변화를 줌.</p> <p>② 구조적, 재료적 수법 : 기존 기둥의 보수, 보강, 현대적인 재료의 사용으로 시스템 문제 해결. 다락의 기존 한옥구조 유지.</p>				<p>① 공간 구성적 수법 : 사랑마루의 개방성으로 인해 시각적으로 규모의 확장을 일으킴. 처마길이의 복구로 내부 공간 변화.</p> <p>② 구조적 수법 : 부엌 수납장 위의 직식공간은 전통적 구조는 살리되 한옥의 단점을 보완한 측면, 수직적으로 공간의 효율성 높임.</p> <p>③ 재료적 수법 : 기존의 담 복구, 굴뚝의 상징 이미지 재구성.</p> <p>④ 의장적 수법 : 창호를 여러 겹 덧대어 빛은 통과되되 전통미를 살리고자 함. 노출조명은 피하고 매립조명으로 은은한 느낌의 이미지 만듦.</p>			
쌍희재 (주거→주거)	 <그림 19> 황두진 건축사사무소, 2005 -‘ㄷ’자 한옥의 기본적인 배치 -작지만 비례감이 뛰어나 균형 잡힌구조(모듈,스케일 중요성)	●	○	○	○	●	●	●	●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31-28		<p>① 공간 구성적, 구조적 수법 : 전체적으로 몇 개의 기둥위치가 변화해 있었는데 기본적인 한옥구조의 모듈의 맥락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한 경간이 도리방향을 따라 집 전체에 정렬되게 하고 공간구성을 정렬시켜 스케일을 조화롭게 변화시킴.</p>				<p>① 공간 구성적, 구조적 수법 : 맥락적 재생과 상통하는 부분으로 한옥구조의 모듈을 유지시키면서 이미지와 구조를 회복시킴. 원래는 사분합문이 달려야 하지만 공간의 규모와 인체 스케일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삼분합문이 설치 됨.</p> <p>② 재료적 수법 : 현대적인 재료와 전통적인 재료의 사용.</p> <p>③ 의장적 수법 : 현대적인 문양과 마감, 색채의 사용.</p>			
서하재 (주거→주거)	 <그림 20> (주)김영섭+건축문화 건축사사무소, 2004 -집의 중심에 안마당 존재 -대지 조건상 남북방향으로 대지가 있어 진입구 정리 필요 -방향전환과 턱, 높이 변화로 인한 영역의 깊이변화 필요	●	○	●	○	●	○	●	○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p>① 공간 구성적 수법 : 도시적 맥락 덕분에 평면은 ‘ㄷ’자형으로 단순하지만 굴곡어귀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오른쪽으로 문간을 열면 안마당으로 다시 들어서게 되는 공간의 문화와 방향의 전환으로 인한 동선의 변화가 나타남. 안마당의 레벨을 높여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차이를 줄여 연속성을 부여. 기능의 확충을 위해 지하실을 새로 만들어 수직적인 확장이 이루어짐.</p> <p>② 재료적 수법 : 외부와 내부의 경계 선상에 짧은 사고석 담장을 두어 기존 한옥의 맥락을 유지하도록 함.</p>				<p>① 공간 구성적 수법 : 좁고 긴 틈새 마당의 생성으로 인해 틈새공간이 생겨 공간의 효율성을 높여주어 이미지를 새롭게 만듦. 처마선, 담장사이로 좁고 긴 틈이 있어 환기와 채광이 가능.</p> <p>② 재료적 수법 : 높은 담장으로 인한 압박감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두터운 사고석으로 경계는 짓되 유리블록을 사용, 안과 밖의 모호함과 빛의 투과 효과를 통한 유연성의 이미지를 연출함. 화장실의 폐쇄성을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는 밖이 보이는 특수유리로 제작하여 새로운 이미지 부여함.</p> <p>③ 의장적 수법 : 기존의 창호들의 조합, 유리문과 종이 바른 문 등을 다양하고 실용적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함.</p>			
연 (주거→상업공간)	 <그림 21> 송인호 서울서림대 건축학부 교수, 2005	●	●	●	○	●	●	●	○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63-20	-안마당에 한옥구성 원리 응축 -기존형상만 남아 있었음. -원래의 기단과 주춧돌만 남기고 많은 부분 변경 -단면을 중시하며 지하실 만들	<p>① 공간 구성적 수법 : 원래의 한옥윤곽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 공간과 요소들의 변화와 변이를 통해 부엌과 기존 한옥의 다락을 유지하면서 다락의 단면을 보존하고 지하실을 만들어 수직적 공간의 확장 일으킴. 안방과 대청과 건넌방을 터서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p> <p>② 구조적 수법 : 상태가 좋지 않은 기둥들의 맥락을 유지시키기 위해 동바리를 대지 않고 새로 치목하여 새우고 서까래도 가급적 보수를 하여 기존의 것을 씀. 방의 반자를 뒤편내고 기존의 서까래를 드러내면서 한옥의 구조를 노출하고 지붕 안쪽 면에서 선서까래가 펼쳐지는 모습, 보와 도리가 서까래 면 아래 걸구되는 방식이 그대로 내부공간에 보이면서 공간이 구축되는 모습이 드러남.</p>				<p>① 공간 구성적 수법 : 사랑방의 레벨을 올리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실의 위치로 동선의 변화를 가져옴. 사랑방 앞쪽으로 쪽마루를 내고 그 앞으로 다시 사고석 담장을 둘러 지하실에 채광이 가능하도록 구성함. 단면의 다양한 차이가 있어 선선하리의 선들과 창 너머 처마선이 함께 보이는 새로운 이미지 창출.</p> <p>② 구조적 수법 : 기존의 한옥이 가지고 있는 구조인 다락을 유지하기 위해 부엌의 층고를 가능한 낮게 구성하고 동선의 원활한 흐름을 일으킴.</p> <p>③ 재료적, 의장적 수법 : 외부 화장실벽은 사고석과 와편쌓기로 마감하여 안마당의 돌마감 바닥이 그대로 연장되어 벽과 함께 느껴지도록 함. 화장실의 천장은 유리블록으로 하여 빛의 유입 가능.</p>			
아틀리에R (주거→오피스)	 <그림 22> 서승모_rdaunit, 2005 -지붕, 기둥만 남기고 제거 -일종의 한옥형 원룸 -대조되는 재료의 사용 -현관에서부터의 동선 변화	○	●	●	○	●	●	●	○
서울시 종로구 창성동 109-9		<p>① 구조적, 재료적 수법 : 지붕과 기둥만 남기고 모든 것을 다 제거하여 전체적으로 한옥의 기본구조는 유지되되 맥락만 이어나가는 수법으로 이루어짐. 한옥형 원룸 형태. 기본적인 재료만 원래의 것 사용.</p>				<p>① 공간 구성적 수법 : 보통의 한옥과 다르게 동선을 두 번 꺾어 들어오면 마당에 들어오게 되는 형식으로 현관이 생겨남. 밖에서 마당이 바로 보이지 않으므로 공간의 활용이 자유로움. 공간의 수직적 변화를 모두 없애고 수평적인 흐름의 패턴으로 마당을 높여 내부바닥과의 연계성.</p> <p>② 구조적, 재료적 수법 : 서까래 아래 단 유리벽만이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구분지어 줌.</p> <p>③ 의장적 수법 : 불라인드의 각도에 따라 다양한 경관이 만들어지며 새로운 이미지 창출.</p>			



명칭	이미지 / 재구축 전·후의 공간	재구축 유형과 수법							
		맥락적 재생				이미지적 재생			
		공간 구성적 수법	구조적 수법	재료적 수법	의장적 수법	공간 구성적 수법	구조적 수법	재료적 수법	의장적 수법
두가현 (주거→ 상업 공간)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31-28	 <그림 23> 최옥 원오원 건축사무소, 2004  -30년간 방치, 와인바로 재탄생 -한옥과 양옥이 조화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외부 -새로운 건축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것 목표.	●	●	○	●	●	○	●	●
① 공간 구성적, 구조적, 의장적 수법 : 기존의 주 구조물은 남겨둔 채 새로운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간 재배치, 공간 확장, 부가, 동선의 변화는 기존의 한옥 틀을 유지하면서 그 맥락은 유지하되 기능적으로 변화를 보여줌. 'ㄱ'자 안채는 필지 경계 안에 들어오지만 동쪽 4칸짜리 건물은 필지 경계의 중간에 있어 안채와 같이 지었거나 그보다는 나중에 지었을 수도 있는 추측, 다양하고 복잡한 돌바닥 패턴의 형태적 연속성을 보이며 건물간의 맥락 유지.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을 재정비한 것. 안채와 별채를 연결하고 대청 옆 건넌방을 흡수하여 여유 있는 진입부의 재정리. 지붕의 잡상은 그대로 존재, 돌출리벳의 철제대문은 역사성과 시간성 재현.	① 공간 구성적 수법 : 내부공간을 그대로 바움으로써 기존 한옥의 이미지를 살림. 기능에 따른 새로운 이미지. 연결용 복도, 주방, 화장실 등을 배치, 마당의 데크공간과 러시아안 석조건물 데크부분의 목재벽 등을 설치하면서 새로운 공간 이미지 부여. ② 재료적 수법 : 기존재료와 새로운 재료가 만나는 부분의 접합 디테일은 시간성의 이미지 연결. 목재와 화강석 자체의 물성은 서로 대비, 이미지를 연결시켜주는 역할. 한옥, 마당, 양옥, 세 공간이 합일, 서로 대비되면서 새로운 이미지 만들어 냄. ③ 의장적 수법 : 기존 한옥은 기둥과 기둥사이 창이 나는 것이 원칙, 길게 난 창은 새로운 이미지 부여. 노출 천장에는 조명을 하지 않으며 양식 건물 창에서 흘러나오는 불빛만으로 연출. 불투명 창호지는 직접 소통할 수는 없지만 시각적으로 배려.								
김태식/ 김연 하가 (주거→ 주거)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31-5	 <그림 24> 김수현, 정재학, 2006  -전체적 규모 큰 한옥 -지하 공간의 생성 -지상부는 한옥, 지하부분은 현대식 시스템 공간 -누마루 생성으로 공간의 변화	●	●	○	○	●	●	○	○
① 공간 구성적 수법 : 대문이 마당 한가운데 있고 사랑채가 그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배치, 대문간을 한 칸 옮기고 사랑채는 없앨 수 없는 부분이므로 전면을 완전히 개방형 누마루로 만들. 동선의 변화와 공간과 공간간의 연계성이 뚜렷해짐. 경사진 길 옆 축대 위에 위치함으로써 지하실을 만들어도 단면의 높이 차가 심하지 않으며 기존의 모습은 유지되기 때문에 주변과의 맥락도 유지할 수 있음.	① 공간 구성적 수법 : 집 주인의 제안에 따라 뒷 부엌의 생성과 화장실을 남이 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직접 밖으로 통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에 맞게 공간들이 서로 연계성을 띄며 배치.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마당까지 갖게 된 공간의 생성으로 인한 변화. 수직적인 공간의 변화는 현대건축에서는 경험 할 수 없는 공간의 집합 이미지 생성.								
무무현 (주거→ 주거)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31-32	 <그림 25> 정재학, 2005  -집 속에 집이 있는 배치. -골목의 모퉁이에 위치, 공공성 -사이공간의 건축적 장치 형성 가능성	●	●	○	●	○	○	○	●
① 공간 구성적, 구조적 수법 : 다양한 프로그램을 대입할 수 있는 'F'자형 배치. 공간의 변화를 맥락적으로 이어줄 수 있음. 한옥의 요소인 다락, 아궁이 존재. 바닥을 높이면서 다락이 없어지고 안방이 들어서면서 기존의 것과 실생활에서의 필요에 의한 공간으로의 변화. 하지만 기존의 다락이라는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다시 복원. ② 의장적 수법 : 도리와 장어를 받치는 구조부재로 간소화시킨 딱지소로는 구조적 역할은 없고 스케일 요소로 작용하는 의장적 요소.	① 공간 구성적 수법 : 안방 한쪽에 문을 내서 부엌으로 통하게 하여 대청을 거실로 보고 부엌과 거실이 붙어 있게 배치. ② 의장적 수법 : 길에 면한 담장에는 주마창이라는 창이 나왔음. 안쪽의 창살을 움직이면 밖에서 집 마당이 보였다 안보였다 함. 의장적인 효과도 누리면서 주변과의 조화를 꾀한 사례.								
궁중 음식 연구원 (주거→ 교육 공간)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36	 <그림 26> 송인호+조경구(주)guga도시건축, 2003  -한옥과 다른 구법과의 조화 -창덕궁 담장을 면하고 있음 -대문을 들어서면 길쭉한 마당이 나옴	●	●	○	○	●	●	○	○
① 공간 구성적, 구조적 수법 : 지붕보양 그대로 노출한 천장에다 서양 서까래(래프터)사이에 미승루바를 일일이 마감하여 옆에 붙은 한옥 대청 들보와 서까래만큼의 시원한 공간감을 줌. 구조 형식이나 전체 외관은 전통건축과 다른 단순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 여러 부분에서 한옥과 조화되거나 그 장점을 계승할 수 있게 계획되었음.	① 공간 구성적 수법 : 소영담과 강의 공간 낙선재 사이에 작고 낮은 담장은 담장을 둥글게 마당이 생기고 소영담과 짝을 이루어 독립된 공간의 배치 이룸. 시각적으로 한눈에 보이지 않고 손작적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를 줌. 현대 멀티미디어 기능을 담을 수 dLT는 공간으로의 질적 변화. ② 구조적 수법 : 내부에 고정된 기둥이나 칸막이 없음. ③ 재료적, 의장적 수법 : 길 쪽을 향한 벽면은 기와를 쌓아 만든 와편 담장으로 본원의 벽면 모양과 똑같이 재현하고 골목 안이지만 시각적으로 두 필지가 하나로 보여 연구원들이 커보이는 이미지를 나타냄. 천장을 동쪽으로 달아 창덕궁 담장을 볼 수 있게 이미지를 생성시키고 시간을 느낄 수 있게 함.								
가회동 주택 (주거→ 주거)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그림 27> 나오디자인  -골목 안쪽의 축대 위 시야가 확 트인 곳에 위치해 조망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구 의 구조변경, 지붕형태 변경을 큰틀로 하고 재생되어진 사례 -진입구의 이동이 일어남	●	●	○	○	○	○	●	●
① 공간 구성적, 구조적 수법 : 집과 길인 주변과의 맥락성을 고려하고 집의 외부와 내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대문 밖 계단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진입구를 재정리 함. 내부는 입구쪽을 막고 있던 방과 대문을 허물어 마당과 통하도록 하였으며 독립된 행랑채를 만들고 원래의 맞배 지붕을 화려한 팔작지붕으로 바꾸어 주변과의 맥락과 한옥의 맥락을 살리는 수법을 사용함. 'c'자 구조의 기본 주택을 중간부분을 잘라내어 안마당으로 향하는 출입구가 나왔으며 독립된 행랑채와 기본주택은 지붕의 형상을 달리하여 맥락성은 유지하되 공간을 구분시킴.	① 의장적 수법 :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주거공간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요소들이 적용되어진 모습. 킷마루 가장자리마다 세운 난간, 거실과 작은 방 사이에 둔 시각모양의 불발기운 등에서 볼 수 있음. 이러한 불발기운은 전통적인 수법대로 시공하였음. 보통 눈높이에서 불발기운을 내는데 이러한 방법은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이며 팔각모양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사각임. 이러한 모양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도 하며 시각적 변화를 일으킴.								

범례: 재구축 수법의 적용도 : ○ 낮음 ● 중간 ● 높음

<표 1>에서 나타난 각 재구축 사례들에 적용된 재구축 수법인 공간 구성적, 구조적, 재료적, 의장적 수법은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중복적으로 적용되어진 예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 적용의 정도는 사례에 따라 다르며 이러한 정도의 차이에 따라 재구축 방법의 구체적인 적용과 내용에 차이가 생김을 알 수 있다.

<표 1>과 같이 한옥의 재구축 유형을 '맥락적 재생'과 '이미지적 재생'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각각의 세부 재생디자인 방법을 도출하였다. 근대건축물의 재생을 위한 디자인방법에서는 주로 '맥락적 재생'의 측면에서 공간구성적인 수법이나 재료적인 수법이 비중 있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기존의 구조적인 보존, 보강에 있어서의 재생 수법도 중요시되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예는 한옥의 재구축에 있어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지만 한옥의 재구축 디자인에서는 '이미지적 재생'이라는 측면이 보다 더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한옥의 재구축에 있어서는 유지, 보존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본 사례 분석의 결과에서는 한옥이라는 큰 의미에서의 맥락은 이어나가면서도 보다 적극적인 재생에서의 다양한 관점적 접근들이 시도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본 논문에서 다루는 사례가 전통적인 한옥, 즉 문화재적 의미가 강한 한옥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맥락적 재생에서의 공간 구성적 수법과 구조적 수법에 있어서는 앞서 3장의 근대건축물의 재생방법에서도 서술되었듯이 주로 기존의 조건과 새롭게 바뀌는 것에 따라 공간이 변화되어야 할 때 그러한 연결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한 고찰이 먼저 되었고 이미지적 재생에 있어서의 공간 구성적, 구조적인 수법에서는 그러한 맥락적인 부분을 기초로 하고 그것을 토대로 새롭게 나타나는 공간에 대한 재정리나 동선상의 재정리, 기존의 구조를 이설, 해체 하는 등 새롭게 생성되지만 기존의 이미지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맥락적 재생에서의 재료적, 의장적인 수법이 같이 혼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앞서 3장에서 근대건축물에서도 외피의 패턴이나 재료를 상징적인 이미지로 만들어 그 맥락을 유지하는 등 서로 연관되어져 나타나는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한옥의 재구축에 있어서도 재료적인 부분과 의장적인 부분이 함께 연결 관계를 가지고 디자인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맥락적 재생에서의 재료, 의장적인 수법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재구축이 이루어진 사례가 많았고 이미지적 재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 5. 결론

이상의 분석과 고찰의 결과를 중심으로 한옥의 재구축 디자인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맥락성의 유지를 위한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 사이의 연결 관계와 그러한 관계 속에서 새롭게 재정립되어지는 이미지적 재생의 방법들을 살펴볼 때 규모의 변화에 관한 특성이 나타난다. 공간의 생성, 제도적인 사항의 회복(처마선의 회복), 기능 확충을 위한 수직, 수평적인 확장이 일어나고 있었다. 면적과 볼륨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로 증축이나 원형의 회복에 따른 규모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한옥의 전통적 외관을 해치고 있던 증축부분이 철거되기도 하고 그 결과 한옥골목의 경관 또한 회복되는 모습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한편 한옥의 전통적인 구성을 유지하면서 지하실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수직적으로 공간을 확장하는 사례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입체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변화 양상은 한옥의 원래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현실적인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모 변화의 방법에 있어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한옥 외관에 있어서는 원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한옥의 내부적 측면에서는 원래의 한옥 내부공간에 생명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재구축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또한 한옥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처마선의 회복 문제는 내부공간의 확장을 위해서 처마선이 비 노출되는 사례가 많은데 완전노출을 하여 그 미와 내부 공간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적 접근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공간 조직의 변화에 관한 특성이 나타난다. 주변과 집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공간의 변화와 그것으로 인한 진입구의 재정리, 동선의 변화, 우연한 공간의 생성 등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건물의 용도와 실기능이 바뀌는 경우는 한옥을 구성하고 있던 단위공간들의 위치와 그 관계성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거주자의 생활편의를 위해 실내에서 동선연결이 가능하도록 방이 부엌이나 욕실로, 대청이 방으로 재구성되는 사례이다. 그리고 최근 동향을 살펴볼 때 주택으로 사용되던 한옥이 다른 용도로 많이 전환되면서 새로운 단위공간이 삽입되는 경우가 보인다. 특히 주거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의 한옥으로 변형되면 가족중심으로 관계지어져있던 공간조직이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간조직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 배치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공간의 변화에 관해 고려할 사항에는 무분별하게 변화된 기능과 용도에만 맞추게 되면 그 외의 다른 관계에서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므로 문간과 안마당과 내부공간으로 연결되는 공간조직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변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옥이 갖는 기존의 가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옥의 규모와 공간조직에 적합한 용도의 결정이 적절한 재구축이 이루어지는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건축성능의 변화에 관한 특성이다. 재료, 기존 요소의 보강 등을 통한 건축성능의 향상, 기존 구조체의 보존을 볼 수 있다. 또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벽체와 창호를 재시공하는 경우로 건축성능의 변화, 바닥 난방, 화장실 등 설비시스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안마당에 면한 한옥입면에 통유리를 사용하는 등의 파격적인 변화도 행해지는걸 알 수 있어 이러한 재료의 사용에 따른 연계성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목재기둥 사이에 통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안마당과 내부공간을 투명하게 연결하고 한옥내부를 마당에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한옥의 문제로 항상 대두되는 대청의 실내보온성능을 높이고 대청과 부엌이 한 공간으로 연결되면서 생활중심공간으로 변화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바닥 난방을 위한 보일러실, 현대적 설비를 갖춘 부엌과 목욕실 및 화장실이 한옥내부에 삽입되는 변화는 거의 모든 사례에서 확인된다.

(4) 재료의 대비, 재료의 연속성, 패턴의 대비 등이 형태적으로 연속성, 전통적 요소의 재현으로 이미지적인 재생의 방법들로 표현되고 있다. 두가헌은 건축양식이 다른 두 건축물이 상호간의 재료적 대비를 통해 그 시간성과 역사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틀리에 R의 경우도 현대적인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한옥의 목구조와 함께 대비시켜 그 시간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 한옥에 쓰였던 재료들의 단점을 보완하여 현대적으로 표현한 창이나 문, 의장적인 부분의 사례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예전의 문양, 방식 등을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기존의 것과 새것의 흐름의 조화와 그 관계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근대건축물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재료적인 수법 또한 한옥에 있어서도 중요한 수법 중 하나였는데 기존의 요소를 재사용 한다거나 현대생활에 맞게 좀 더 기능적으로 재사용 할 수 있는 수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도 장식적, 상징적인 요소들의 재시공, 재현 수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옥의 재구축의 특성은 아직까지 외관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나 내부공간의 질적인 변화도 점차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외부공간과 더불어 내부공간의 질적인 변화에 있어서 보다 심도 있는 재생디자인적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외관과 내부적인 부분이 통합적으로 계획되어지는 방법론적 접근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되어진다. 이것은 한옥이 현대라는 시점에 있어서 새로운 건축적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 반드시 검토되고 시행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되어 진다.

## 참고문헌

1. Powell, Kenneth, Architecture reborn : the conversion and reconstruction of old buildings, Laurence King, London, 1999
2. John Ruskin, Unto This Last and Other Writings, London; Penguin Classic, 1985, Chronology
3. 황두진, 한옥이 돌아왔다 : 건축가 황두진의 한옥 짓기 / 건축가, 한옥을 이야기하다, 서울 : 공간사, 2006
4. 새로운 한옥을 위한 건축인 모임, 한옥에 살리랴 : 아름답게 되살린 한옥 이야기, 파주 : 돌베개, 2007
5. 윤승준, 대한건축학회, '재생', 건축, 근대건축물의 재사용에 따른 보존과 재생의 방법 및 기준, 1995
6. 조전환, 전통문화 세계화를 위해 뛰는 사람들, 한 스타일, 전문가 칼럼
7. 김지성, 근대건축물의 보존활용을 위한 등록문화재 제도에 관한 연구, 충남대 석사논문, 2005
8. 강현주, 건축적 중재를 적용한 맥락적 설계방법, 동명대 석사논문, 2002
9. 강혁, 서구 근대 건축사의 기술과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2
10. 김수암, 리모델링의 개념에 대한 일반건축물(라멘조) 신축기준 설정 연구, 한국건설기술원, 2001
11. 임태희, 근대건축물의 상업용도 활용사례에 나타난 내부공간 디자인 수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6.10
12. 황보봉, 근대건축, 근대건축운동 그리고 도쿄모모,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4. 05
13. 권영재, 카를로 스카르்ப의 공간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론, 2007

[논문접수 : 2009. 12. 31]

[1차 심사 : 2010. 01. 20]

[2차 심사 : 2010. 01. 29]

[게재확정 : 2010. 02. 05]